

민심 역주행하는 지방의회

광주·전남 절반 이상이 의정비 인상 추진 ... 지역민 ‘눈총’

일부는 2년 연속 인상·인상폭도 커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의 재정악화에도 지방의회 절반 이상이 앞다퉀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인상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의회는 2년 연속 인상하고 인상폭도 커 지역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1일 광주·전남 각 지방의회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광주 북구의회가 올해 의정비 3372만원에서 내년도에는 3540만 원으로 4.9% 인상했다. 광주 시의회는 올해 4855만원에서 내년도 4980만원으로 2.2% 인상하는 안을 놓고 주민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3일 오후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인상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 동구의회도 3108만원에서 3394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진행중이다.

반면, 광주 서구·남구·광산구 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했다.

전남에서는 22개 지방의회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개 지방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했거나 인상을 추진중이다. 보성·장흥·해남·영암·장성군의회 등 5개 지방의회는 적게는 2%에서 많게는 5%이상 인상했다.

이 중 장흥군의회는 경우 내년도 의정비를 5.5% 인상한 데다 작년

(3%)에 이어 2년 연속 의정비를 인상해 주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장성군의회는 의정비 심의와 여론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의정비를 3150만원으로 올해보다 5% 인상했다.

여수시와 담양·강진·함평·영광·완도군 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할 예정이다.

목포시의회는 경우 인상안을 제출했다가 반려됐다.

하지만, 전남도의회와 순천·광양 시의회를 비롯한 곡성·구례·고흥·화순·무안·진도·신안 군의회 등은 경제난과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4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해 인상했거나 인상을 추진중인 지방의회와 대조를 이

뤘다.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해당 의회들은 의정비가 수년째 동결된데다 다른 시·도 지방의회와 비교해 액수가 적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무더기 의원직 상실 등, 일부 지방의원들의 잦은 추태로 지방의원 역할에 대한 시선이 끈지않은데다 대부분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아 여론의 항배가 주목되고 있다.

최권일·김지을기자 cki@kwangju.co.kr /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2011 지역신문컨퍼런스

지역신문발전위, 3~4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지역 언론인들의 축제 ‘2011 지역신문컨퍼런스’가 오는 3~4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최창섭)와 광주일보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및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지역신문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원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3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프리 컨퍼런스’에서는 최창섭 위원장이 올해

새로 출범한 제 3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우선지원대상 지역신문사 사장단으로부터 위원회에 바라는 요청사항을 청취한다.

4일에는 오후 1시부터 스마트시대의 미디어전략과 보도 및 편집, 독자친화형 신문제작 및 지역공헌, 경영·광고·조직혁신 4개 분야 12개 쉼션으로 나눠 우수 사례를 발표한다. 광주일보의 ‘우리가 품어야 할 다문화가족’을 비롯 30개(일간 15개사, 주간 15개사) 신문사에서 42건의 사례를

발표한 뒤 토론을 나눈다.

위원회는 이날 우수사례 발표작과 아이디어·광고 공모전 참여작 가운데 문화부장관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작을 선정, 시상할 계획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관계자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종합편성채널 등장 등으로 인한 신문경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신문들은 경영혁신과 독자중심의 지면제작을 통해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는 그러한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신문 종사자간 친교와 화합의 한마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신지애

신지애 골프아카데미 가시화 되나

“상무지구 부지 매입” ... 700억 투자 여부 주목

투자금 확보로 애로를 겪으면서 설립 무산 우려까지 제기됐던 ‘신지애 골프아카데미’와 관련해 신지애 측이 연말까지 광주 상무지구 부지 매입 의사를 밝혀 설립이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신지애 골프아카데미 추진위원회는 연말까지 광주 상무지구 상무소각장 뒤편 사유지 5만㎡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밝혔다. 이와 관련, 신지애 측은 애초 투자자로

알려진 S사 대신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이 투자자를 대주주로 3~4개 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애초 투자자였던 S사가 높은 대출이자로 이자손실 등을 감안해 투자를 꺼려 신지애 측이 새로운 투자자를 찾았다는 보고를 해왔다”며 “연말까지 부지를 매입하기로 한 만큼 신지애 아카데미가 순조롭게 설립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지애 측은 부지를 매입 한 뒤 애초 계획대로 내년 12월까지 총 700억원을 투자해 신지애 아카데미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신지애는 지난해 9월 강운태 광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 700억원을 투자해 상무지구 상무소각장 부근에 골프아카데미를 설립하는 내용의 투자확약서(LOC, Letter of Commitment)를 광주시, 도시공사와 체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영석 원정대’ 빈소 오열

마련된 빈소에서 오열하며 분향하고 있다. 산악인장으로 진행되는 박영석 대장과 신동민, 강기석 대원의 영결식은 3일 오전 10시에 엄수된다.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다 지난달 18일 실종된 고(故) 강기석 대원의 어머니가 1일 오후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오열하며 분향하고 있다. 산악인장으로 진행되는 박영석 대장과 신동민, 강기석 대원의 영결식은 3일 오전 10시에 엄수된다.

/연합뉴스



김연아

F1경주장 ‘피겨여왕’ 김연아 뜬다

12일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서 팬사인회

국내 최대 규모의 모터스포츠 대회인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KSF)의 올해 시즌 최종전이 오는 12일 영암 F1경주장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가 경주장을 방문해 팬사인회를 갖는 등 이 지역민들과 첫 만남을 가지며 제네시스쿠페 신차 퍼포먼스 등 풍성한 서킷 이벤트도 마련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1일 KSF 주최측에 따르면 12일 영암 F1경주장에서 열리는 KSF 4차전에서는 제네시스쿠페 챔피언십과 아반떼 챌린지, 포르테를 챌린지 등이 열린다. 총 65대의 경주차가 시즌 최종전을 펼쳐 올해 챔피언을 가린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현대자동차가 후원하는 김연아 선수가 영암 F1경주장을 처음으로 직접 찾아 모터스포츠 팬을 만난다. 샵실트랙 후면에 마련된 팬사인회

공간에서 약 500명의 현장 관중을 대상으로 팬사인회를 열며 명예 마샬(진행요원)로 스타트 깃발을 올리고, 챔피언십 시상식, 제네시스쿠페 페이스리프트 런칭 이벤트에도 출연한다.

한편, KDB금융지주(회장 강만수)는 1일 서울 여의도본점에서 ‘F1 끝나후 후원행사’를 열고 F1 선수를 지망하는 서주원(늘푸른고교 2년), 김재현(일산 백신고교 1년) 등 4명에게 2000만원에 달하는 후원증서를 전달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강운태 시장 여성권의 증진 우수단체장상 수상

강운태 광주시장이 여성의 권익 증진과 지위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경숙)로부터 ‘우수지방자치단체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강 시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세계 첫 UN 인권도시 지정 추진, 여성재단 설립, 음란성 불법전단과 전쟁선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반영, 여성권익시설 설치, 여성기업제품 구매우대 시행, 전국 최초 보육시설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등 수준 높은 여성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는 상이다. 강 시장은 취임 이후 여성이 행복한 광주 건설을 위해 여성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업무추진으로 초선 광역단체장으로서의 첫 수상을 하게 되는 영광을 안았다.

시상은 5일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47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이뤄진다. /최권일기자 cki@

이명박 대통령 출국

러시아·프랑스 순방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러시아와 프랑스 순방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편으로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2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3~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의견을 교환한 뒤 5일 귀국한다.

/연합뉴스

50년 전통 · 대를 잇는 한의원

잇몸병 한약 2첩

붓고 시리고 애리고 피날때

**북경당 한의원**

대인시장 한미소평 맞은편

한의학 박사 **박 상 준**

전 화 **227~7575**

이 이 궤 ~ 치료 치료

대한 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결 제110725-윤-9092호

신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 끌려다니시는 분 (병의.신병)

- ♣ 우울증 / 불안 / 대인 공포증
- ♣ 환청이 들리시는 분
- ♣ 불면증 / 학습증진
- ♣ 기억력 회복 / 주벽이 심하신 분
- ♣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신 분

최면요법으로 병의퇴치 등등 배우실분 전착순 5명모집

무등산 길상사 주지 법공

문의 062-228-6606, 010-3747-6606

발목펌프 운동



신체발달 패턴변화속 경침검침 음성카운터 운동방이란?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목 디스크 예방과 치료 등)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아주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상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경침운동기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일건강이 개발한 특허제품 뿐입니다.

★특허등록 제30-0465075 발목운동기구★

- > 편백 경침 겸용 운동방 음성카운터 내장(아파트용) **75,000원**
- > 편백 경침 겸용 운동방(아파트용) **55,000원**
- > 경침 겸용 운동방(주박용) **30,000원**

제일건강 문의전화: **010-7510-2000**
광주 광역시 남구 진월동 256-1
농협: 601154-52-335334 서영섭

속받은 돈!

합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 채권의 유형

채권의 유형	대상 채권
상거래 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매매 채권	부동산, 동산, 준부동산
금전소비대차 채권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갚돈 등
임차권 채권	주택, 상가, 차량, 중기 등의 사용자 대여료, 보증금
임금 채권	급여(정규, 일용)
기사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부양
구상권	보증인 구상, 신원보증 구상, 변제구상(제3자)
기타	저작권, 부당이득, 형사 합의금, 기타

차용증, 지불각서 상담

SM 솔로몬신용정보

대표전화 062)606-9000 영업팀장(문재준) 010-5311-0086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회 기록서비스 · 개인신용정리관리 철저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1년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 ~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다대출 | 연체(등금미납)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적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1년 5%~7.5% (은행금율) / 후순위 ~ 월1.2%~3%

국민금융 (대부 제 042호)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사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담보대출 한도: KB시세-80%+a (60%) 금리: 연 3.93%~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보증금의-80% 금리: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부 제 042호)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